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㉔ - 옥병서원(玉屏書院)



최 중 규
포천명예외 회장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26호
소재지 :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산 210
규모 : 전면 7.70m 측면 4.70m

옥병서원은 사암 박순 선생이 老年에 永平 山水를 사랑하여 蒼水面 注院里로 落鄕(낙향), 이곳에서 餘生을 마치고 그의 墓所 또한 平素(평소)에 선생이 寓居(우거)하던 곁에 安葬(안장)하게 되자 掘川선비

사암 박순 선생의 덕과 학문을 기린다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에 위치한 옥병서원.

들은 思庵 先生(사암선생)의 높은 德과 깊은 學問을 기리기 위해 仁祖 27년(1649)에 書院을 創建(창건)하고 先生을 祭享하였다. 24년(1698) 申相公 琬(완)의 建議(건의)로 隱 李義建(동은 이의건)선생과 文谷 金壽恒(문곡 김수항)선생을 追配(추배)

하였고 肅宗 39년(1713) 李相公 李相倫(이상공 이명)과 閔相公 觀厚(민상공 관후)의 建白으로 賜額(사액)되었다. 高宗 年代에 이르러 大院君에 의하여 國內에 많은 書院이 廢絶(廢絶)되자 때를 같이 하여 玉屏書院도 廢絶되었다. 그 후 掘川 儒林들이 書院의

毀撤을 목과할 수 없어 院址(원지)에 設壇(설단)을 하였고, 設壇을 할 무렵에 財政을 들켰다는 約束下에 村老 金聲大(촌노 김성대)와 有心齋 李和甫(유심재 이화보), 그리고 存省齋 尹鳳陽(존성재 윤봉양) 등 세 분을 追加로 奉安하였다. 1981년 國費(국비) 및 道費의 補助(보조)로 은 玉屏書院 옛 모습 그대로 復元(복원)하게 이르렀다. 박순 선생의 지는 화숙, 호는 사암, 본관은 충주이다. 1553년 (명종 8)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대사헌 대사간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에 올랐으며 선조 임금님이 송 균절조수월정신(松筠節操水月精神)이라고 극찬한 청렴하고도 강력한 관리였다. 니주의 월정서원 광주의 월봉서원에 배향되고 저서로 사암집이 있다.

세익스피어 에세이

우리도 노쇠한 엘리자베스 여왕을 재생시킨 풍요제를!



박 정 근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한국의 현재의 병도 어찌 대통령 혼자만의 병이겠는가. 여당과 야당이 모두 조화의 정치를 못하고 적절 한 공존보다는 남의 탓을 하는 불모성에 빠져있기 때문이 아닐까. 자, 정치적 비아그라를 모두 먹어 보라. 육체의 정기 못지 않은 정치의 정기가 뻗어서 정치의 상생과 사랑의 불타오르지 않겠는가.”
요즈음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더니 정치적·사회적으로 중병에 걸려 신음소리가 하루도 끊이지 않는다. 중앙 일간지들은 앞을 다투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이 연일 사실과 껄림으로 지면을 채우고 있다. 아마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풀어 주는 카타르시스적 약품으로 가장 잘 팔리는 것 같다. 아무리 민주사회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비중이 엄청 나는 것을 반증한다고나할까.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왕이 성적으로 불능에 빠지면 국가 전체가 불모성에 시달리게 된다고 믿었다. 그래

성적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녀가 집착하는 인디언 소년을 자신의 시종으로 즐 것을 요청한다. 그들의 사랑의 불화의 원인이 티타니아의 과도한 모성애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양적 관점에서 본다면 음과 양의 양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의 부조화는 당연히 자연의 재앙과 인간 사회의 혼돈으로 이어졌음을 티타니아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바다로부터 이상한 인개를 뵈다. 강물이 범람해서 육지를 뒤덮어 짐승들이 꿈쩍 못하게 한다. 갖은 심통을 부렸지요. 그런 일 때문에 농부들은 땅 훑린 것이 허사가 되고, 보리나 밀이 싹도 트기 전에 썩어 버리게 하고, 양우리가 물에 잠겨 형체도 없게 되고, 암소는 병이 들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재미있는 겨울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바다의 침범한 지배자 달님은 화가 나서 습기를 차게 하여 병을 일으켜 놓게 되죠. 그 뿐이겠어요? 이들은 기후까지 뒤 흔들며 정신 못 차리게 하거든요. 때어진 서리 때문에 장미를 얼어 죽이고, 낡은 겨울 옛된 꽃봉오리들에게 얼음 세례를 주는 것은 너무 악착스러운 일이지요. 봄, 여름, 결실의 가을 이것들을 모두 뒤바꿔서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고요. 이제 다 우리들의 싸움 때문이에요. 그들을 양육해야 하고 보호해야 할 우리들이 그들에게 그런 해를 끼치고 있다고요.”

작품의 희극적 분위기로 인해서 희석되었다 하더라도 두 요정의 왕과 여왕의 불화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추론할 수 있다. 『오디푸스 왕』에서 라이어스왕의 살해에 대한 저주로 테베사회에 일어나는 자연의 재앙에 못지 않은 것으로 통치자의 결함이 얼마나 심각한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하지만 티타니아는 재앙의 가해자의 잔인함만 나무랄 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녀는 자신에게 충성했던 여인이 산고로 죽었기 때문에 그녀가 낳은 인디언 소년을 자신이 대신해서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조할 뿐이다. 그녀는 오베론의 자신에 대한 성적 욕망을 간파하고 모성애에 대한 집착을 함으로써 그의 복수를 유도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오베론은 큐피드가 처녀왕인 베스타성(星)을 향해 화살을 쏘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달빛에 의해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려 더 날아가지 못하고 떨어져버린 사건을 언급한다.

처녀왕이나 차가운 달빛은 모두 늙어 가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암시하며, 성적 불모성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한 화살이 떨어진 곳은 사랑의 꽃의 꽃잎 위였으며, 그 꽃잎은 잠에서 깨어나 첫 번째 본 대상을 미칠 듯이 사랑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 오베론은 모성애로 인해서 자신과의 잠자리를 피하는 티타니아에게 복수할 겸 치유의 방책을 내놓는다. 오베론의 판단으로는 인디언 소년을 자신의 시종으로 빼앗아 와서 티타니아의 부드럽고 관능적인 소년애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자신의 성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티타니아가 오디푸스 콤플렉스적 영향으로 마치 출산 후 관심을 온통 아이에게 쏟는 모성에 의해서 소외된 아버지처럼 티타니아의 관능적 사랑을 재조정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큰 위협될 수 있음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요정의 왕 오베론은 잠든 티타니아의 눈에 사랑의 묘약을 발라 당나귀를 사랑하게 하여 색스피어에게 빠진 티타니아를 치유하게 된다.

한국의 현재의 병도 어찌 대통령 혼자만의 병이겠는가. 여당과 야당이 모두 조화의 정치를 못하고 적절한 공존보다는 남의 탓을 하는 불모성에 빠져있기 때문이 아닐까. 자, 정치적 비아그라를 모두 먹어 보라. 육체의 정기 못지 않은 정치의 정기가 뻗어서 정치의 상생과 사랑의 불타오르지 않겠는가. 한국 정치의 재생을 기원해본다.

“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에서 권력, 물질, 힘, 언변, 개성 등을 내세워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만 보편적 잣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진정성을 획득할 수 없다 ”

서 왕이 잠든 사이에 제거해버리고 젊고 성적 능력이 강한 왕으로 대체하였다. 이 후에는 국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왕을 인위적으로 시해하는 것이 비인간적으로 받아들여 왕의 시체에 대한 모조품을 만들어 땅에 묻고 봄에 다시 재생시킨다고 믿는 풍요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한국사회도 대통령이 통치불능상태에 빠져서 이로 인해 전 국가가 불모성에 빠져있다고 믿는 것일까. 세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상징하는 요정의 여왕 티타니아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요정의 왕 오베론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다. 오베론과 티타니아는 현실세계의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와 여왕 히플리타의 성적욕망을 나타내는 환상적 존재이다. 요정의 왕과 여왕의 갈등은 그들이 상징하는 현실세계의 통치자와 아테네의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티타니아는 그녀에게 충성하던 여성의 사랑이 인디언 소년애에 대한 모성애적 집착 때문에 그녀의 남편 오베론과의 성적 관계를 멀리하여 강한 질투를 유발시킨다. 티타니아는 요정들에게 “시기 많은 오베론, 요정들아, 어서 뛰어가거라. 나는 이분과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니나니 같이 만나지도 않을 거로 했으니까”라고 선언한다. 오베론은 티타니아와의

교육에세이 27

큰 꿈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우리 포천의 학생 여러분! 우리 포천 교육의 지향점은 '도덕성과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는 바대로 글로벌이라는 말은 영어의 global(지구의, 전 세계의)로, globe(지구, 세계)라는 명사에서 파생한 형용사 '전 세계적' 또는 '전 지구적'이라는 뜻으로 21세기 들어 여러 분야에서 대단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10대인 지금 성실한 자세로 차분하게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가정 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해서 사 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도덕성과 세계 일류를 지향하기 위한 뛰어난 창의력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각자 자신의 원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를 성실하고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분명한 목표 설정과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있는 생활을 해 나가는데 도움을 드리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을 현재의 모습으로만

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디즈니랜드>는 월트 디즈니의 꿈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또한 달나라로 가는 꿈이 있었기에 아폴로호도 나왔습니다. 꿈이 먼지만큼은 실현이 됩니다. 꿈이 있어야 이뤄지며, 작은 꿈이 자라 큰 꿈이 됩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Goethe)는 "꿈을 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목표도 없이 단지 지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포천의 학생 여러분!

며 방향타이며, 인간이 지니고 있는 속성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속성인 것입니다.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 실현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교육학 용어에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주위의 예언이 행위자에게 영향을 주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자기충족적 예언 이론(self-fulfilling prophecy)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자성에 연(自成豫言)'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극 정성으로 원하고 갈구하며 노력하게 되면 그 뜻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원대한 꿈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으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한 후 그 목표에 도달하고 또 근접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기 바랍니다.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하루'이고 '한번밖에 없는 하루'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삶이고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시간은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마냥 주어 진 것 같지만, 각자에게 주어

지 정 주
포천여자중학교 교장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나면 끝입니다. 시간의 낭비는 생명의 낭비이며, 자기 삶을 허비하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남송(南宋:1127~1279)의 대유학자(大儒學者)로서 송나라의 이학(理學)을 대성한 주자(朱子:朱熹)의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 권학문(勸學文)에 나오는 시의 첫 구절이 생각납니다. 소년노학산성(少年易老學難成: 사람은 쉬이 늙는데 학문은 이루기가 어렵다). 즉 세월의 빠른 흐름에 비해서 학문의 길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활기찬 하루 하루의 노력과 땀방울 속에서 위대한 승리가 열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소중한 자녀이며, 점차 국가를 발전시켜야 할 동량인 동시에, 아름답고 보람찬 인생을 엮어가야 할 삶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저마다의 꿈을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자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꿈을 실현해 감으로써 '세계 일류의 글로벌 인재'가 탄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 담은...
■건강을 선물하는 알뜰가격 2만원대 부터...
꽃샘 종합선물세트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꽃샘고려홍삼골세트 (홍삼골 1000g)
꽃샘특선봉밀1호 (잡화골 2200g)
꽃샘기획세트1호 (대추골차 1200g/잡화골 1200g)
꽃샘기획세트2호 (영지골차 1200g/잡화골 1200g)
GS기획세트 (잡화골 1200g/술잎골차 1200g)
꽃샘프리미엄골세트1호 (아카시아 1200g/잡화골 1200g)
꽃샘토종고기구3호 (토종골 1200g)
꽃샘토종고기구1호 (토종골 2400g)
꽃샘골차세트 (영지골차 1200g/대추골차 1200g)
꽃샘5호 (골대추차, 골유자차, 골술잎차 x 1000g)
꽃샘8호 (영지골차 1200g/홍삼100 70ml x 7포, 대추골차 1200g)
꽃샘4호 (영지골차, 술잎골차, 대추골차 x 600g)
(주)꽃샘종합식품(대표이사: 이상갑)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40 TEL.(031)541-9921(대) FAX.(031)541-9933 www.ksfs.co.kr 소비자 상담실 전화번호는 080-541-9920